

Gary Yates 박사, 12권, 17회, 요나 – 요나의 메시지와 구조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소선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17강, 요나의 메시지와 구조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계속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책을 공부할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까지 배경 문제를 다루었지만 이제 책의 실제 메시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나요?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이 책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에 뭔가를 추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지 주일학교 이야기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요나서에는 강력한 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를 보기 시작하면서 요나서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겠습니다.

단순히 물고기 이야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염려하신다는 사실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열두서서 중 요나서를 볼 때, 12권의 더 큰 책의 일부인 부분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의 힘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와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 이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관한 이야기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예언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방식에 관한 핵심 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구절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예레미야서 18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 면에서 요나서는 그 신학적 원리가 작동하는 실제 예이자 시연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만일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신다면, 만일 그 백성이 반응하여 그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실 기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심판을 보내지 않고 대신 축복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반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과 살롬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합당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거나 죄로 변하면 그 축복의 메시지가 심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도 그런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너희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한다고 요나에게 말씀하신다.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질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아무런 조건도 붙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다듬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선지자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발표할 때마다, 그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근본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또는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자신이 말한 것을 철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가능성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2서 전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그리고 포로 이후의 공동체에서 3~4세기 동안 사역을 수행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반적으로 호세아서 이후부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반응이 매우 적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음란의 영이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제기된 부적절한 반응, 돌아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열두서서 앞부분에 있는 요엘서에서도 선지자가 백성에게 응답을 요청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시니라 그는 재난에 대해 후회합니다. 누가 알아? 그는 돌아서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뒤에 축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반응이 있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요엘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했지만 대부분 선지자들의 마음 속에는 사람들이 그 예를 갖고 있습니다. 듣지 마. 우리가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살펴본 책 전체에 걸쳐 작동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회개와 재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책들, 아모스서, 미가서, 스바냐서, 하박국서에는 재발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긍정적인 예는 선지자들의 마음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응답하는 사람이 아시리아인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앗수르인들에게 재발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나훔이 그들에 대해 선포하는 심판의 연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십이사도서에서는 400년 동안 서너 가지 긍정적인 회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예 중 하나는 아시리아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악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궁극적으로 북왕국을 포로로 잡아가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반응하는 사람들이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요나서가 12서에서 기능하는 것 중 하나는 질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런 종류의 반응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말은, 그들에게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메시지를 전한 첫날에 들어갑니다. 그는 다섯 단어로 설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고 백성은 하나님께 응답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왜 이런 반응이 없었습니까? 여러 면에서 이것은 십이사도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을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마도 가장 작고 가장 최소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공훈과 은혜를 베풀어주셨을까를 상기시켜 줍니다. 지난 수업에서 우리는 요나 3장에서 우리가 본 것이 실제로 부흥, 즉 국가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앗시리아 사람들의 개종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반응이라도,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상황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의 최악의 적들이 회개한 사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기소에 대한 이 모든 반응 문제는 불순종한 선지자의 메시지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만큼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의 일부입니다. 나는 요나서의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목적은 요나가 공의, 신성한 공의, 하나님의 자비 사이의 긴장 문제와 씨름하고 투쟁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옅과 같은 책을 생각하며, 와, 그것은 신정론과 정의와 자비의 문제와 악인과 그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진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것들. 요나가 패러디된 방식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속성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공훈을 베풀시고 그들에게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실 때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요나야, 요나는 왜 가고 싶지 않았느냐? 음, 서술자는 우리가 이야기의 맨 마지막인 4장 2절에 도달할 때까지 매우 교활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숨깁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장래 일을 정확히 알았으므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나이다 내가 앗시리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이것이 내 시간표에 맞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나를 산 채로 벗겨버릴까 봐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요나는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 보면, 요나가 기록된 시기에 따라 북왕국의 포로가 이미 일어났었다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극복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자비를 보이려는 하나님의 성향은 정의를 실현하려는 그분의 성향보다 훨씬 더 큼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루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온 땅의 재판관이 옳은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려는 거룩함의 성향과 책임을 초월하는 자비를 베푸시는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헤세와 긍휼과 자비를 천 대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핑계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자주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삼사 대에 걸쳐

보응하시느니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은 천 대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진노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노여움이 잠시 지속될 수도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사이의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속성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궁극적으로 해결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문제와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서에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세 번째 목적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중 한 사람인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신학적 고백 중 하나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음, 요나서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기 쉬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나는 비둘기를 뜻하는 요나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나가서 선교사가 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을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며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기념했다면,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열방까지 확장된다는 사실도 기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스스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생각엔 많은 사람들이 구약성서를 읽을 때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한 작가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신약이 선교적이라는 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당신은 이야기의 큰 부분을 놓쳤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신학을 다루는 그의 저서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n of God)에서 이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와 관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요나는 그 궤적과 그 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 역사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류를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형상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부섭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죄가 그 이야기를 방해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시는 일련의 언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을 향한 중대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지만, 하느님께서도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그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아브라함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말했습니다. 그는 왜 구약 전체에서 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걸까요? 그러나 구약은 단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열방에 이르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선교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창세기에서 요셉이 맡은 역할과 그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축복에 반영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실 때, 출애굽을 통해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한 나라를 이루십니다. 출애굽기는 혼합된 무리가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여행할 때 주님과 연합하여 떠나 그 구원의 일부가 된 애굽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땅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존중해야 하며, 그들이 여호와께 충성과 충성을 바친다면 예배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허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을 위한 구원의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에 룯이라는 모압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구원 역사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녀는 나오미에게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네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은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종종 유익을 줍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시리아 과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치면서 여호와와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 여호와께 예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역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고 내게로 인도하였노라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요 또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었나니, 제사장의 왕국.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에 두셨는지에

대한 지리학적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 위대한 초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육교에 두셨습니다. 그 나라들이 오갈 때나 통과할 때, 그들은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접촉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길과 위대함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이 율법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말하기를 어느 백성이 이런 율법을 받았느냐 하리로다? 어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런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명령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임재하고 가까이 계시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스라엘이 열방을 위한 독특한 패러다임의 삶을 살았으며 이것이 거룩한 나라의 모습임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너희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는 그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좋은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약속은 단지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복되다는 단어가 반사적 뉘앙스를 지닌 히피엘 어간에 자주 들어가며 그 생각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스스로를 축복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보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이시니 너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슬픈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역할, 이런 축복, 일종의 선교적 책임이 주어졌으나 그들이 그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또한 열방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도 선교가 있고 신약에도 선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구약성서의 선교에는 이스라엘에 와서 “와, 우리는 너희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말하는 나라들이 포함됩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결국 다른 나라의 신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신약성서의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으로 나가서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생각은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의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지혜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녀는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가서 여호와와 그의 위대하심과 솔로몬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의 삶에서도 그는 결국 그것을 하나님을 반영하기보다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 이르면 이스라엘의 증거와 사역,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축복에 이방인들을 포함시킨다는 사상이 선지자들 전체에 걸쳐 주요 모티브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종말론적 메시지는 네 가지를 다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왕을 보좌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통해 열방도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국제적인 관심을 가장 잘 반영한 선지자는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 일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일어날 때 열방은 그 빛으로 모여들 것이며 그들은 그 왕국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49장 6절에서, 죄 많은 자기 백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고난을 당할 고난의 종이 될 주의 종의 역할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열방의 빛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종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보면 너무 작은 일입니다.

그 메시지와 구원은 열방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구약이 선교적인 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살펴보아야 할 구절 중 하나는 확실히 요나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19장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19-25절.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선교 본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과 유사하며, 하나님의 선교적 관심이 대위임에서 시작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19장 19-25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왕국에 대한 이사야의 환상을 들어보십시오. 그 날에는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을 것이고, 그 국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입니다.

애굽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큰 적이었고 압제자였습니다. 이제 미래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하나님께 제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니 그 날에 애굽 사람이 여호와를 알고 제사와 예물로 경배하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준행하리라. 즉, 과거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 치시고 고치시리니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대신에 축복과 치유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는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가 애굽으로, 애굽이 앗수르로 가리니 애굽인이 앗수르인과 함께 예배하리라.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4절을 보십시오.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앗수르와 더불어 세 번째가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어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과 앗수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이 땅 가운데서 복이 될 것이라 내 손으로 만든 것, 이스라엘은 내 기업이다. 좋아요. 구약성서에는 열방을 위한 선교적 관심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그리고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단지 이집트, 과거에 하나님의 적이었던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앗수르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침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쪽 왕국을 포로로 잡은 자들이었습니다.

장래에는 천국의 축복에 포함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앗시리아와 이스라엘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나라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그 역할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이집트인들과 아시리아인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 두 대표 국가인 이집트와 앗시리아는 단지 모든 국가가 미래의 왕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을 대표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을 가리키는 구약의 예입니다. 나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예견하고 예언했으며, 앗수르 사람들을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요나서에서 앗수르인과 니느웨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토록 중요한 배경이자 배경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시리아 미술 작품과 그들의 폭력 미화를 기억해 보십시오. 막대기에 찢린 백성, 잘린 팔다리, 그들이 전쟁에서 정복하고 정복한 민족들에게 고문을 가한 것입니다. 아슈르바니팔의 비문은 그들의 피로 내가 산을 양털처럼 붉게 물들이고 나머지는 계곡과 산의 급류가 삼켰느니라.

나는 그들에게서 포로와 재물을 빼앗아갔습니다. 나는 그들의 전사들의 손을 자르고 그것으로 그들의 도시 앞에 탑을 세웠습니다. 나는 그들의 사춘기 소년 소녀들을 불태웠다.

하나님께서 이런 타락하고 타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긍휼과 긍휼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나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범위에 관해 이야기하는 두 구절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요나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 배경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12장 14절부터 17절에 또 다른 놀라운 선교적 구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앗수르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방식과 이사야 19장과 비슷하게 이 구절에서도 원주민인 가나안 족속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올 당시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고 멸절하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한탄하시는 모든 거짓 예배 행위를 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말은, 그들은 그 과정에서 전멸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기업에 손을 대는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에서 뽑아내겠고, 유다 족속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이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은
 후에 다시 불쌍히 여겨 그들을 각각 자기 기업과 본토로 인도하여 오리라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백성에게도 나는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내 백성에게 모든 사람으로 맹세하도록
 가르쳤던 것처럼, 그들이 내 백성의 길을 부지런히 배워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듣지 아니하면 내가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에게 바알 숭배를 가르쳐 이 악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포로의 심판을 받게 한 백성이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을 심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것과 똑같은 긍휼을 열방에게도 기꺼이 베푸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끝 부분에는 열방에 대한 일련의 심판의 연설과 열방에 대한 예언이
 있을 때, 그 끝에는 이 심판이 끝난 후에 여호와께서 성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의 행운. 위안서 예레미야
 30~33장에서도 같은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소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스가랴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에게 정결케 하는 심판을 행하신 후에 이 마지막 전투와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구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열방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요나는 때때로 기독교인인 우리도 놓칠 수 있는 구약성서의 더 큰 신학적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선교적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면에서 이것을 놓쳤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시초부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임을 볼 때, 교회가 사역을 수행하는 것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에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에서 이스라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나라들을 염려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나서의 메시지 중 일부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그러한 관심을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기본 목적 중 일부입니다. 요나서의 각 장을 살펴보기 전에, 요나서의 구조와 구성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나서는 주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이자 신탁이기 때문에 12서의 다른 모든 책들과 크게 다릅니다.

요나서는 기본적으로 이야기이다. 우리는 시의 한 장, 즉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요나의 기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주로 선지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예언서에서 이와 가장 가까운 점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생애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언서는 그들의 메시지에 더 가깝습니다.

요나는 이야기에 더 가깝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의 다른 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서술 기법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이 책의 구조에 대한 이해이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봤더라도 책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책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명확하게 두 부분과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반쪽과 이 두 섹션은 서로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인 1장과 2장에는 주님께서 요나를 죽음에서 구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는 불순종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치려고 할 때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1장에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 이야기는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시고 요나를 죽음에서 구원할 물고기를 마련하십니다. 우리는 2장에서 이를 축하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패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는 죽어 마땅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서의 두 번째 부분인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초점은 이제 주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심판을 받으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책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유사점과 유사점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고 죽음의 순간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면할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는 요나가 나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니네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구조를 조금 더 파고들면 그 점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실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장에서 네 개의 패널이 있는 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교대 패널 구조라고 부르는 반면, 1장에서는 이를 A 패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A 패널에서 이 이야기의 주요 초점은 요나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할 때 그가 타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이교도 선원들 사이의 상호 작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 A 패널, 요나와 이교도들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두 번째 패널인 2장은 B 패널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B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상호작용은 요나와 이교도들 사이, 또는 요나와 한 무리의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상호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2장은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로 소개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요나와 이교도들, 그것이 A 요소입니다. 2장, B요소인 요나와 하나님. 우리는 또 다른 A 요소에 대한 3장의 세 번째 패널로 돌아왔습니다.

요나는 주로 이교도 집단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요나는 니스웨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니스웨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패널인 4장은 2장과 평행을 이루는 B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요나와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들은 니스웨의 구원에 관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야기 구성의 첫 번째 장, 이것이 이 책의 문학적 예술성의 일부입니다. 1장과 3장은 요나가 한 무리의 이교도들과 교류하는 장으로서 서로 평행합니다. 이것의 유머와 아이러니는 이 두 패널 모두에서 이교도 사람들이 요나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2장과 4장은 요나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이기 때문에 서로 평행합니다. 둘 다 진술로 소개되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1장과 2장, 3장과 4장, 그리고 패널을 보셨으니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책의 첫 부분에서 누군가를 죽음에서 구해 주실 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내가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요나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요나는 다른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요나는 기뻐합니다. 내가 물고기에서 나오면,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그러나 책 후반부에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메노파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을 보고 관찰할 때, 4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반응과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축하하기는커녕 그 구원에 대해 불평을 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축하하는 대신, 이것이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라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헤세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요나의 반응과 하나님이 메노파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그가 반응하는 방식의 대조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괜찮은.

요나서에는 구원과 구원의 세 가지 위대한 행위가 나옵니다. 좋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신 세 가지 분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중 첫 번째는 1장에 나오는데, 배에 탄 선원들이 이 큰 폭풍 가운데서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지자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교도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며, 이 장에서는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예배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선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때 적절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희생과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관찰은. 1장의 끝에서 우리는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큰 구원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그분은 바다와 폭풍과 일어난 이 모든 일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서 주님께서서는 큰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요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도 구원은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당신께 제물을 바치고,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선원들의 반응.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께 제물과 서원을 드립니다.

요나의 반응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제사와 서원을 드리게 하십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책에 나오는 세 번째 위대한 구원 행위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유형의 반응을 기대합니까? 2장을 보면 요나가 기도하고 심지어 장을 뛰어넘는 시편을 쓰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온 도시, 12만 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니네베 사람들이 큰 악을 행하였느니라, 라아.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그 라아 를 회개할 때, 그들에게 내리려고 계획한 재앙 라아 에서 그들을 살려 주십니다. 그러나 요나 4장에서는 그것이 요나에게 심히 라아 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악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눈에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단지 요나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의 문제로 씨름하고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니느웨의 구원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결국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는 니네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는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가 선택된 백성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 4장에서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된 이 위대한 고백이 또한 길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주변 국가들과 상호 작용할 것입니다. 괜찮은.

요나서에는 주요하고 중심이 되는 몇 가지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개요를 살펴보면서 다음 중 몇 가지를 빠르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주 주권 개념을 강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시고 그가 니느웨 성으로 나갈 때 그에게 지시하심에 따라 그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이교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책에 반영된 자연의 힘과 측면을 절대적으로 통제하신다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책에 등장하게 될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1장 4절에서 주님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창을 던지는 전사처럼 단순히 폭풍을 일으키실 뿐입니다.

그분은 폭풍을 일으키시어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향해 폭풍을 보내십니다. 그 바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나 자연의 힘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반복될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마나(manah), 즉 임명하다라는 단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1번과 3번에 걸쳐 하나님의 우주 주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1장 17절에서 주님은 큰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주님 마나 께서는 그 물고기가 바로 그 자리에 있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 내었다고 나옵니다.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한 작가는 물고기가 요나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훨씬 더 잘 반응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4장에서 요나가 앗수르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화를 내고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실물교훈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나 라는 단어는 여기서도 자연의 힘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를 나타내기 위해 세 번 반복되었습니다. 4장 6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늘을 주는 식물인 마나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요나가 이것을 즐기고 심히 기뻐하고 그 식물에 대해 기뻐한 후, 다음 날 하나님께서 그 식물을 공격하여 파괴하는 벌레인 마나를 지정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요나는 다시 화를 냈습니다. 그런 다음 교훈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4장 8절에서 해가 뜰 때 하나님 마나가 뜨거운 바람을 정하셨습니다.

요나서에는 마나 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폭풍과 물고기와 이런 모든 종류의 일들을 지휘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우주 주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책의 더 큰 메시지에 어떻게 들어맞나요? 이것은 요나가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소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요나는 여호와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요나가 종종 이해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우주 주권에는 필연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그분의 우주 주권과 함께 우주적인 동정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시며 자비로우시며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상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을 개관하고 개관하는 요나서의 마지막 주제는 악과 재앙의 개념이 핵심 반복주제이자 핵심 키워드이자 핵심 사상이자 핵심 모티브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라아, 그들이 저지른 악,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이루시고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다루십니다.

그것이 긴장이고 책의 투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고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측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바탕이 되는 신정론의 메시지이다.

그러므로 요나서를 통해 작업하는 동안 그것은 중요하고 흥미롭습니다. ra'ah 라는 단어 가 사용될 장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큰 라아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요나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1장 7절과 8절에서는 라아라는 말을 사용하여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기 자신과 배와 사공들에게 내린 재앙을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라아 에 대한 죄를 지었습니다.

3장 8절, 니스웨 왕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칩니다. 그 회개에는 라아(ra'ah)를 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 라아에서 돌아서는 상호 응답을 하십니다.

이 단어는 악과 재난을 모두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재난을 후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러한 특성은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시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요나서 4장 1절에 니스웨를 살리시는 것이 요나에게 라아입니다. 그것은 사악하다. 그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니스웨 사람들에게 이 자비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축하하는 대신 요나는 하나님이 그의 라아(ra'ah)를 후회하시는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와 구조는 우리가 요나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니스웨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셨는데 왜 그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까?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교회에만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미국에만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민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관심은 구약성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신약성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열국의 구주로 보내시기 위한 서막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 측면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점을 연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년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17강, 요나의

메시지와 구조입니다.